



2 0 1 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 원 사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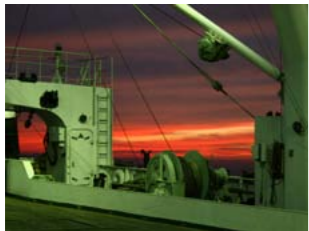
2 0 1 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 사업



# 사업소개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승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부산을 소재로 한 창작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사업>을 자체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사업

### 사업기간

2012년 5월 - 2013년 6월 (승선기간 2012년 8월1일 ~ 8월11일)

### 사업집행기간

2012년 8월 1일 - 2013년 4월 30일

### 사업비

20백만원 (자체 20백만원)

### 지원대상

1년 이상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부산의 문화예술인(5명이내)

### 분야

문화예술 전분야

### 사업내용

승선(11일 소요)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 창작

### 지원내역

선실 및 선내 식사 제공, 보험가입비, 창작지원금 1인당 250만원

### 후원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

## 추진일정

### 2012. 5

부경대학교 업무협의

### 2012. 6. 19 - 7. 16

승선작가 공모, 접수 (21일간)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www.bscf.or.kr

### 2012. 7. 19 - 7. 20

심의, 선정

### 2012. 7. 23 - 7. 31

보험가입 및 승선작가 계약체결

### 2012. 8. 1 - 8. 11

승선체험

### 2012. 8 - 2013. 4

지원금 교부, 지원  
참여작가 창작활동



# 후원소개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은 수산관련 학문의 이론 및 기술을 교수·연구하며 창의적으로 지성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본 대학은 1941년부터 4년제 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부경대학교의 모체가 되었으며 현재 체재로는 2개 학부, 7개 학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영역으로는 모두 10가지의 학문분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1947년 서무과에 선박계가 설치되었으며, 그 뒤 2001년 조직개편으로 선박실습운영센터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다. 선박실습운영센터는 승선실습과 교수 및 연구활동을 통하여 앞으로 해양산업분야에 종사하게 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실습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립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

### Add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

### Tel

051-629-5803~9

### Web

<http://fishsci.pknu.ac.kr/>



정광모  
백현주  
박주현  
서정우  
이창진

문학  
영상  
미술  
미술  
미술

# 정 광 모 문학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작품발표  
한국소설 (2012. 10)



## 닷과 흔들림

### 1. 출발

부산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2년 올해 3회째를 맞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인들은 열흘 쯤 지정한 선박을 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부산문화재단은 선박 탑승과 작품 창작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

처음에는 고등어와 전갱이를 잡는 대형선망 선박을 탔다고 한다. 2회부터 예술인들은 부경대 실습선인 가야호에 탑승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소속인 가야호는 1993년에 준공한, 전장이 81.7미터에 1,737톤에 달하는 선박이다. 부경대의 실습생 103명에 승무원과 지도교수 32명, 문화예술인이 5명, 합해서 140명이라는 적지 않은 사람이 배에 올랐다. 2012년 8월 1일, 부산항 5부두에서 출항해 8월 11일 다시 5부두로 돌아오기로 계획되었다.

가야호가 출항할 예정인 8월 1일 오후 2시, 부산문화재단 관계자들이 5부두까지 나와서 우리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며 환송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환송만 들통 받고는 그날 떠나지 못했다. 서해안으로 올라간 태풍 담레이로 가야호는 하루 반을 부두에 붙잡혔다가 8월 3일 아침에야 출항했다. 담레이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코끼리를 뜻한다. 코끼리 걸음처럼 느긋하게 다니라는 뜻인가? 우리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지역인 부두에서, 바다를 향해 열린 공간이면서 동시에 닫힌 공간인 선박에서 하루를 보냈다.

가야호가 출항 준비를 뜻하는 ‘스탠바이’ 되자 브릿지는 김종화 선장을 비롯해 서 항해사와 관련 사관이 정렬한다. 배를 부두에 대거나 떠나는 방법은 까다롭다. 까닥 잘못하면 선박이 부두시설이나 다른 배와 충돌해서 손상된다. 배가 클수록 회전반경이 커진다. 우현으로 정박한 가야호는 먼저 수평으로 5부두의 접

안시설에서 멀어져야 한다. 선미에 달린 선박 주엔진은 전진과 후진에 쓰인다. 그래서 선수에 수평이동과 배의 회전에 쓰이는 트러스트라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다. 선장이 브릿지에서 ‘아웃 스타보드’ 같은 항해 용어로 연달아 지시하면 항해사가 지시사항을 복창하며 키와 엔진을 조정한다. 가야호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조금씩 부두에서 발을 떼다. 방파제를 넘어서면 파도와 맞서는 외해가 기다린다.

출항은 부두 접안시설에서 로프를 풀면서 마무리된다. 커다란 선박에도 작은 요트와 같은 요령이 적용되는 셈이다. 가야호가 입항할 때는 로프 고리에 줄을 매달아 부두로 던져 그 로프를 당겨서 비트에 매어 접안한다. 뚝뚝 시절부터 쓰인 원시적인 도구인 로프가 현대에도 변함없이 부두와 선박을 연결하는 고리다. 고정된 부두와 움직이는 선박을 연결하는 로프의 연결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로프는 벗겨지고 배는 떠나야 한다. 로프로 육지에 늘 매인 배는 폐선에 불과하며 로프로 부두에 연결될 기약이 없는 배는 유령선이다.

### 2. 닷과 흔들림

출항하자 가야호는 거문도를 향해 달린다. 먼 길이다. 아직 태풍의 영향이 남아 너울파도가 바다를 흔든다. 거문도 앞에 놓인 백도를 한 바퀴 돌았다. 날카롭게 솟은 바위들이 흔들리는 석양 아래로 놓였다.

거문도 옆 바다에 가야호를 세우고 닷을 내려 묘박한다. 항해사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울려 퍼진다. ‘투묘(投錨)준

비’, 닷을 내리라는 말이다. 선수에 닷이 두 개 있는데 보통 닷 하나를 내린다. 끄리리릭. 쇠줄에 달린 닷이 킁킁한 바다로 내려가며 괴상한 마찰음을 낸다. 바닷물에 혼자서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고통스런 소리다. 닷을 내린 구멍을 들여다본다. 무서운 심연이 나를 잡아당길 듯 마주 보였다. 검푸른 바다의 바닥에 닿은 닷은 팽팽히 당겨진 장력으로 선박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탱한다. 하지만 배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다. 닷을 내려도 배의 속도계는 0.18노트를 가리킨다. 진북을 찾으며 흔들리는 자침처럼 배는 닷을 중심으로 조류를 따라 선회한다. 저 묵직한 닷도 선박을 바다에 고정시키지는 못한다. 인간의 사랑도 마음이라는 유동하는 액체에 내린 닷이 아닐까? 남자와 여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닷을 내린 선박처럼 고정시키려 애쓴다. 부질없다. 그나마 바다에 내린 닷조차도 영원히 머물지 못한다. 선박도, 사람도 그 닷을 조만간 거둬서 떠나야 한다.

객실의 이층 침대에 누워 등근 현창을 통해 바깥을 보았다. 멀리서 밤이 가린 거문도가 보인다. 가야호가 켜 조명등이 날이 선 백파를 비춘다. 여기에 응답이라도 하듯 거문도의 등대가 불빛을 빙그르르 돌린다. 검은 하늘로 한줄기 빛이 번쩍인 몇 초 후에 등대 빛이 다시 돌아온다. 등대는 반복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던진다. 내가 여기 있다. 암초가 여기 있다. 육지가 여기 있다. 나를 믿어라. 내 불빛을 믿어라. 등대는 거친 파도와 강풍이 부는 바다로 손을 흔든다. 유동하는 액체에서 흔들리는 인간은 그 메시지에 안도한다.

우리는 누구의 등대일까? 사람들은 모두 누구에게, 아내와 남편과 자식으로, 또는 첫사랑의 연인으로 등대이겠지.

밤새 배는 너울파도에 흔들리며 잠과 꿈을 함께 흔든다. 지구는 돌고 요동하며 바다는 흔들린다. 흔들리는 바다는 지구가 움직이는 행성임을 우리에게 각인한다. 파도의 움직임에 배는 속수무책이다. 그 요동을 누가 멈출 수 있랴?

유동하는 액체에 잠겨 흔들리는 선박의 모든 장치는 흔들림에 맞서 고정되어 있다. 책상 서랍은 서랍 밑의 고정 장치를 잡아서 당겨야 열린다. 탁자와 세탁기는 튼튼한 철제 받침대에 고정되었고, 샤워실의 온수용 보일러는 철제 가로대에 결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투박한 대비는 그저 임시방편일 뿐이다.

인간은 화산과 지진에 놀라 호들갑을 떨다가 육지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곧 잊어먹는다. 화산과 지진은 다시 살아 움직이는 자신의 실체를 인간에게 재앙으로 입증한다. 그러나 바다는 그런 징벌을 내릴 필요 없다. 바다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징벌이다. 그래서 바다는 죽음의 이미지다. 망망대해에서 시커먼 바다를 들여다보라. 옛 뱃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악마나 괴물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하리라. 과학과 공학의 도움을 받아 오늘의 선박이 디젤엔진과 레이더와 GPS로 무장해도 유동하는 액체는 그 배를 집어 삼킬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태풍과 허리케인을 확인해서 강풍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도망가기 바쁘다.

가야호가 귀항하기 전날, 거제도 노장포 바다에서 묘박했다. 엔진이 꺼지고 배가 섰다. 닻을 내린다. 끼릭 끼리릭. 닻을 내리는 소리는 배에서 듣는 소음에서 가장 기이하

다. 왼쪽으로 유람선이 들락거리는 외도가 보인다. 오른쪽은 내조라도와 외조라도. 선박의 맞은편으로 거제도의 와현 해수욕장이다.

대학시절에 한번 다녀갔던 와현 해수욕장을 근 삼십여 년이 지난 작년에 찾아가서 얼마나 놀랐던가. 기억 속의 재래식 화장실에 낡은 민박에서 머문 한적한 와현은 사라졌다. 호텔이 들어서고 백사장을 단장해서 아무리 봐도 낮설었다. 단지 와현이라는 이름만이 같을 뿐이었다. 내 기억에 내린 와현이라는 닻은 아무것도 붙잡아둘 수 없었다. 기억 속의 와현과 현실의 와현 두 곳이 존재했다. 삼십년 전 나는 어디를 다녀왔던 것일까? 와현이라는 현실은 흔들리고 내 기억도 흔들린다.

### 3. 조업

가야호는 항해 실습선이자 트롤어업선이다. 지하층에 강의실과 학생용 침실이 있고, 넓은 후미 갑판과 그물을 감고 푸는 트롤원치 조종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브릿지에서는 GPS와 해도 교육, 항해일지 작성, 레이더, 키, 엔진 조종을 함께 교육받는다.

제주도 동쪽 바다에서 조업을 시작했다. 갑판원들이 갑판 후미에서 어구를 정렬한다. 투망 순서는 자루그물-날개그물-후릿줄-전개판-끝줄 순서다. 플로터가 달린 그물을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의 순서로 여덟 팔자형으로 펼쳐 방패 모양의 철제 오타보드(전개판)를 매달아 바다에 내린다. 바다에 가라앉은 그물은 오타보드의 무게로 옆으로 벌어지는

데 천천히 배를 전진시키면 고기들이 자루그물 가운데로 몰려 잡힌다. 그물을 매단 로프는 수심이 백에서 백 오십 미터일 경우, 수심의 서너 배 길이로 내리는데 이번 조업에서는 약 사백 오십 미터였다.

그물을 오전과 오후에 모두 네 번을 쳤다. 트롤원치로 그물을 끌어올리니 알이 굵은 참돔과 황돔이 많다. 길이가 칠십 센티 정도 되는 큰 놈과 수압 차이로 눈알이 튀어나온 놈도 몇 마리 보인다. 오징어와 전갱이도 제법 들었다. 복어가 몸을 부풀리며 죽어간다. 그물코가 넓어서 충분히 빠져나갔을 어린 고기들도 적지 않다. 백 오십 미터까지 내려간 잔인한 그물에 고기들은 무방비 상태로 걸려들었다. 갑판에 그물을 올리면 3항해사가 실습 학생에게 고기를 분류하고 상자에 담고 조사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조종실에서는 역시 3항해사가 트롤원치를 조정하며 실습생들에게 오타보드와 그물을 내리고 걷는 방법을 교육한다.

제주도 동쪽 넓은 바다에 조업어선이 보이지 않는다. 궁금해 물었다니 갑판원 한 분이 이 조업지에서 일본 수역이 멀지 않아 레이더 등의 장비가 좋지 않은 어선은 일본수역으로 넘어가기 쉬우며, 만약 한국어선이 일본수역으로 넘어가면 일본순시선이 귀신같이 다가와서 나포하는데 벌금이 3,000만원이라한다. 남획으로 고기 씨가 마른 남해안에 비해 제주도 지역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최근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서 어항이 시원찮기는 마찬가지다.

미륵도와 추도 사이의 조용한 바다에서 색다른 조업을 했다. 장어를 잡는 통발을 부이에 매달아 30개를 내렸다. 플

라스틱 통발 입구에 작은 발을 달아 날카로운 끝이 가운데로 물리게 하여 한 번 들어간 장어는 거슬러 나오지 못한다. 그 통발 안에 전갱이 등을 넣으면 장어가 냄새를 맡아 기어 들어간다. 전갱이를 먹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장어의 신체. 어부는 4,000개의 통발을 바다에 던지기도 한다. 바다 밑을 헤엄치는 장어는 4,000곳에서 달려드는 유혹을 견뎌야 한다. 생각해보자. 남자와 여자를 4,000의 연속되는 유혹 사이로 걸어가게 해보라. 도대체 누가 견뎌낸다 말인가? 인간이 개발한 유혹적 장치에 장어는 꿈쩍을 못한다. 그리하여 장어는 멸종할 것이다. 식욕과 성욕으로 유혹하는 모든 장치는 얼마나 혹독한가.

### 4. 소음

여수항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선박 생활이 일상생활과 다른 점을 찾으면 소음을 들 수 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서 주기관을 꺼도 배에서 소음은 그치지 않는다. 보조기관 또는 발전기로 불리는 엔진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전기와 냉방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소음을 내며 발전기가 돌아가는 덕분에 전기는 넉넉하다. 우리 선실은 시원한 냉방으로 오히려 긴 옷을 찾게 했고, 콘센트가 4개나 되는 덕분에 노트북과 핸드폰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같은 방을 쓰는 화가는 선실을 채운 소음은 아랑곳없이 작업에 열심이다. 인물 초상화를 현장과 같은 선박의 다양한 장소에 놓아 사진을 찍어서 새로 초상화를 그린다. 동일한 인물화가 배경과 장소에 따라 새로운 느낌으로 재창조되는



기법이 기발하다. 문자라는 비좁은 일방통행로에 갇힌 문학보다는 훨씬 자유로워 보인다.

선실 아래쪽을 통해 들들대는 소리는 처음 배를 탄 귀가 예민한 사람은 짜증을 낼 소음이다. 그러나 며칠 아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그 소음에 적응한다. 그러다가 육지에 내려서 갑자기 몸에 붙어 다니는 소음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깜짝 놀란다. 그래서 배를 오래 탄 선원은 오히려 적당한 소음이 들려야 편안하게 지낼지도 모른다.

문화예술인들이 머무는 곳은 상갑판이다. Upper Deck, 건물로 치면 1층의 좋은 자리다.

복도를 사이로 선실이 있고 그 중앙에 ‘짜롱’으로 불리는 휴게실이 있다. ‘짜롱’은 긴 휴게 탁자와 냉장고와 싱크대, 대형 텔레비전이 있다. 선장과 기관장, 1항해사를 비롯한 사관들이 ‘짜롱’에 자주 들른다. 갑판에서 한 층 오르면 선장실, 기관장실, 통신장실이 있는 F'dle deck다. 한 층 더 오르면 선수 쪽 진행방향이 180도로 훤히 보이는 브릿지다. 선박 조종실로 정식 명칭은 NAV, BRI, DECK다.

우리가 머무는 상갑판에서 한 층 내려가면 2nd Deck로 강의실 두 개와 조리실, 식당이 있다. 한 층 아래는 3rd Deck로 부경대 실습생이 머무는 선실이다. 선실은 6인실인데 방마다 2층 침대가 세 개 놓였다.

그 어디에서도 소음을 피할 수 없다. 선박이 내는 기계음

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흐르는 개울이 전하는 자연음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지도교수가 말한다. “선박이 내는 소음에 익숙해지면 선원이 된 겁니다.” 나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열흘짜리 뜨내기인 나에게 선박 소음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이명과 같다.

모터보트로 추도에 들었다. 통영 앞바다의 관광객이 찾지 않는 한적한 섬이다. 선착장에 붙은 대항마을 앞에 정자와 몇 백 년은 묵은 포구나무가 있다. 따뜻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무화과나무가 주변에 많다. 들들대던 소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맑은 바람소리와 당찬 매미음과 같은 자연음이 가득하다. 고즈넉한 정자에 앉으니 멀리 보이는 가야호가 꿈결인양 아득하다.

추도에서 두 시간을 머물고 모터보트로 돌아왔다. 오늘 밤은 배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 자연음에 귀를 한 번 씻어낸 나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 5. 구명정

비진도 앞바다로 이동했다. 묘박한 앞바다에서 망원경으로 비진도 해안을 살펴본다. 백사장엔 친 텐트와 비진도의 두 섬을 연결한 좁은 콘크리트 도로가 보인다.

점심을 먹은 오후 1시에 구명정을 타고 백사장 앞으로 가서 침수 훈련을 했다. 훈련에 앞서 사관들이 먼저 모터보

트로 비진도 주민과 해양경찰에게 양해를 구하러 떠났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지도교수와 함께 모터보트를 타고 먼저 비진도를 향했다. 갑판에서 로프에 매달린 모터보트를 바다에 띄우고 선박 우현에서 바다로 내린 철제 계단을 걸어 조심스럽게 보트에 올라탄다. 모터보트는 굉음을 내며 바다를 질주한다. 흰 파도가 날리고 보트는 파도를 펄쩍 넘어선다.

가야호에서 출발한 구명정이 백사장 앞 100미터 지점에 다가오자 구명조끼를 입은 실습생들이 바닷물로 뛰어내린다.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쉽게 백사장으로 헤엄쳐 올 것 같은데 조끼의 부력이다 파도가 세차서 쉽지 않은 모양이다. 조교를 겸하는 3항해사들이 제자리에서 허우적대는 학생을 잡아당겨 내기도 한다. 구명훈련을 마친 실습생들은 비진도 백사장에서 체조를 하고 기마전 놀이도 하며 여흥을 즐긴다.

세 시간을 보내고 구명정으로 귀선했다. ‘구명정’, 그것은 말 그대로 선박이 침몰하거나 비상상황에서 목숨을 부지시켜 주는 배다. 잠수정을 닮은 구명정은 52인승에 신호탄, 며칠 분의 비상식량, 비상식수가 갖춰져 있다. 7노트 속도로 움직이는 엔진이 달려 있고 출입문을 밀폐해서 바닷물을 막을 수 있다. 가야호 본선에서 구명정에 로프를 내려 선박 후미에 묶는 작업이 쉽지 않다. 그런 다음에 구명정을 가야호 후미의 경사판에 붙여 갑판에서 내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구명정 입구에 발을 올리고 파도에 흔들리는 리듬

을 타서 가야호의 사다리로 건너간다. 사다리와 구명정 사이의 간격은 넓지 않지만 가야호와 구명정 모두 흔들리니 그 리듬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승선을 끝내면 구명정을 갑판에 올려 고정시켜야 한다. 좌현 갑판에서 쇠고리를 구명정의 선수와 선미로 내리면 구명정 안에 탑승한 선원들이 쇠고리를 붙잡아 구명정의 고정장치에 걸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묵직한 쇠고리가 선원의 손에 맞으면 다칠 것 같아 염려스럽다. 여러 번의 안간힘 끝에 구명정이 갑판으로 올라온다. 다시 구명정을 갑판의 고정대에 올리고 와이어로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그렇다. 나도 살아났고 구명정도 살아났다.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갔다.

귀항은 출항의 역순을 되짚어간다. 주전자섬과 태종대와 북항부두의 방파제가 벌써 눈에 선하다. 인생은 무언가를 향한 끝없는 출항과 귀항을 반복하며, 현실이라는 유동하는 액체에서 떠다니는 긴 항해다. 가끔 구명정을 타야 할 일도 생기리라. 구명정 실습처럼 쉽게 살아나면 좋으련만. 선박 난간에서 5부두로 풀쩍 뛰어내렸다. 땅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어쩌면 유동하는 액체인 ‘현실’에 발을 디딘 내가 흔들리는지도 모른다.

# 백현주 영상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작가의 작업은 그들의 이념을 만들어 나가고 구역을 채우며, 그것을 위해 함께하는 전제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게 기획 짓는 행위 자체에 작업의 가능성을 항시 열어 둡니다.

작품발표

그 중간에 바다

In the middle of the

프로젝트

##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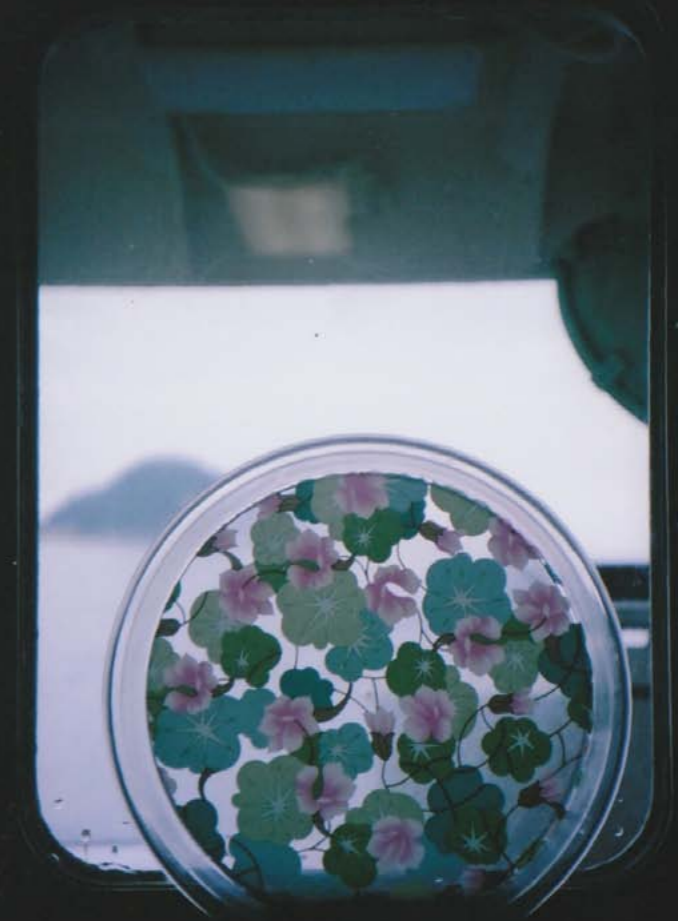
작가는 항시 무리가 구성되는 이유와 구성원들의 행동범위, 그리고 그들만의 노동과 이야기를 내포하는 설정에 관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그들만의 구조 안에서 작가만의 방식으로 대화, 몸짓, 의식 등을 재해석해 냅니다. 실제 작가가 매스(단체)를 대하는 태도는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행태를 꾸며내기에 실제 작업에서도 유머러스하고 활동적으로 그들의 소통방식을 끌어냅니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구조를 최근에는 그들이 예측되는 구역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작가만의 논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전달, 소통, 변형 그리고 무리로서의 점진적인 활동과 서로 간의 관계는 작가로 하여금 공간(구역 territory)이 그들의 말과 노래, 춤으로 변형되고 법률화된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재해석하게 합니다.

이번 승선 레지던스를 통해 진행한 In the middle of the 작업 시리즈는 바다라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배는 드리프트(뒹굴) 내리고 바다 위에 떠있는) 를 포함하여 멈추지 않고 항해를 합니다. 그 위에는 어슴푸레 지어진 국가의 경계만 있을 뿐 그 외에는 푸른 파도와 가끔 만나는 풍랑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나는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손으로 가리키고 의논하며 기뻐합니다. 빛과 어둠뿐인 창밖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화두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진진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지 못했던 바다의 모습은 사진이나 판 광엽서 형태로 제작되어 육지에 부쳐지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작가의 작업은 그들의 이념을 만들어 나가고 구역을 채우며, 그것을 위해 함께하는 전제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게 기획 짓는 행위 자체에 작업의 가능성을 항시 열어 둡니다.

사진엽서, 네가티브 필름 현상 실험, various size, 2012



## 승선체험소감

작가는 부산태생이지만 바다를 가까이 접하며 지내진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바다는 휴가철에 가거나 데이트하러, 아니면 시집가서 집을 떠난 언니를 만나러 갈 때 만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2012년에는 그 로맨틱한 바다에서 11일간 지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업의 공간으로 바다 위를 항시 생각해 두고 있었던 터라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기획이었고, 지원이었습니다.

가야호의 첫 느낌은 너무나 정중했습니다. 선장님과 선원분들의 따뜻한 환대와 살짝 흔들리는 배 안에 걸린 달력들이 좋았습니다. 파도가 배를 밀어내는 힘이 좋았습니다. 꺼먼 물 위에서 육지를 내려다 볼 때의 그 멋지고 육중한 무게가 좋았습니다.

이따금 제가 상상한 바다와 현실의 괴리를 만날 때는 며칠간 어지러워 계속 누워있어야 했다거나, 심해에서 바로 잡아 올린 싱싱한 회를 개인의 취향 때문에 먹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11Days-11일, 폴라로이드 사진 11장 프레임, 98×41cm, 2012



작업에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과 같이, 배는 지속해서 어느 곳을 향해 가려 합니다. 닻을 내리고 한곳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하여도 축을 중심으로 계속 원을 그리며 바다 위를 떠다닙니다. 가만히 서서 자전하는 지구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듯이 지속해서 맴도는 해상 위에서의 생활은 실제 제가 얼마나 작은 범주에 속해 있는지를 바다가 정확히 짚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달과 별처럼 작은 섬들이 저를 중심으로 이동했다 다시 돌아올 때 바로 작업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구획의 경계는 자연스레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면 내리찍는 햇볕 아래 똥똥 떠다니던 가야호와 마주하는데 벌써 추운 겨울입니다. 언제 또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될지 기약이 없는 것 같아 기분이 좋게 섭섭합니다.

11일간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신 김종화 선장님과 이종근 교수님 외 김민선1항사님, 김동수, 정봉규 2항사님, 류경진 박치완 3항사님, 정태영 기관장님, 항시 맛있는 식사로 저희 멀미를 달래주신 김용주, 정종안 조리장님 등 배를 움직이신 많은 선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과 작업을 만들 기회를 주신 부산문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엽서, 네가티브필름현상 설치, various size, 2012





사진영서, 네가티브필름현상 설치, various size, 2012



사진영서, 네가티브필름현상 설치, various size, 2012



# 박주현 미술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버려진 사물들을 통해 그 속에 변화 되는 인간 내면의 모습과 자아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생활 속 오브제의 일부인 도구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방식을 시도해왔다.

## 작품발표

박주현 조각 개인전 (tool story)

2013년 1월 17일 - 2월 5일

해운대 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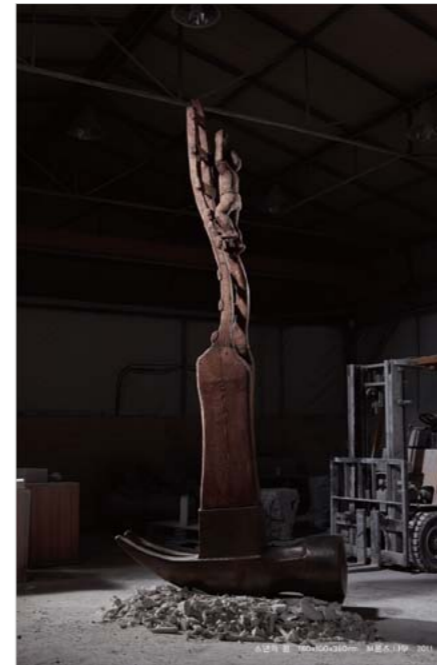
이번전시는 버려진 사물들을 통해 그 속에 변화 되는 인간 내면의 모습과 자아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시각예술의 비중은 더욱 중요시 되었고 일상의 생활과 장소에 까지 쉽게 파고 들고 있다. 그러므로 작업의 소재를 일상의 사물로의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인간의 삶과 밀접한 오브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기성품의 오브제 (objects ready-made)중에 일상의 도구들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도구를 통해 작업의 고민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노동의 가치와 도구의 소중함을 알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생활 속 오브제의 일부인 도구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방식을 시도해왔다.

도구는 인간사와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속에는 삶의 해학과 이상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류는 그곳에 노동이라는 값진 땀방울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전자 기기의 발달로 이미 인공지능의 단계에 까지 발전한 현실이지만 여전히 도구가 가진 아날로그적인 노동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위한 지고한 노력의 의지로 읽어 질수 있다.

작업의 소재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상실하거나 버려진 것 혹은 낡고 오래된 도구들을 인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재현해 내었다. 일상에 쉽게 접하는 나무와 쇠가 결합된 손 도구를 가공하여 작은 형상을 조각하였다. 일반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망치, 못, 톱과 같은 친근한 소재들을 통해 유연한 생각과 다양한 시각으로 대중들에게 현대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박주현 조각전

Park, Juhyun Sculpture Exhibition

POST

2013. 1. 17<sup>(Thu)</sup> - 2. 5<sup>(Tue)</sup>

OPENING  
2013. 1. 18<sup>(Fri)</sup> PM 6:00  
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AM 10:00 - PM 6:00  
Closed on Monday



6th Solo Exhibition  
Park, Juhyun - TOOL STORY  
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문의처 011-9950-1893  
post@france.or.kr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0-10 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2F  
Tel. 051-740-0000 Fax. 051-740-0001

얼굴, 버려진 오브제  
10×20cm, 2012



시끄럽다, 버려진 오브제  
20×30cm, 2012



옆사람, 버려진 나무토막, 망치,  
12×40cm, 2012



세, 통로즈, 40x20cm, 2011





# 서정우 미술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당신’과 함께하는  
환영 속에서 살고 있는 세계  
이번 여행에서는 더 이상  
환영이 아니더군요.

작품발표  
서정우 개인전  
[얼굴-당신과 함께 할때면]  
2012년 8월 31일 - 10월 5일  
문앤박 갤러리

##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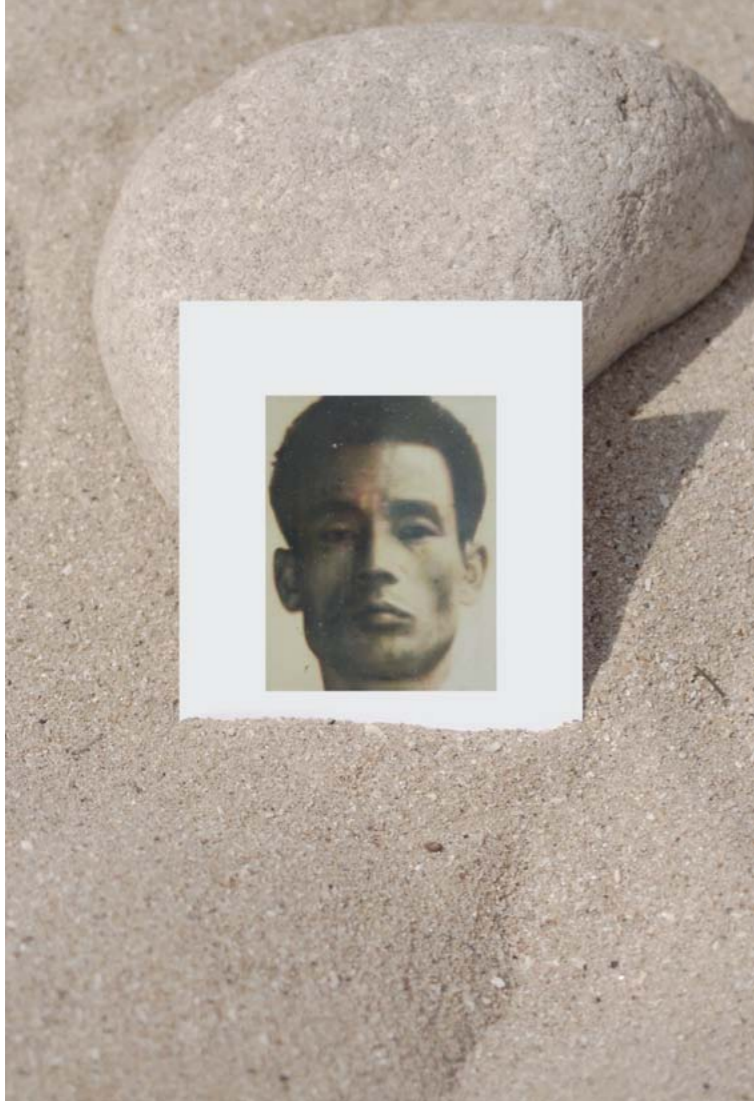
작업실에서  
제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저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지하 작업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너무 숨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 때 즈음,  
우연히 배를 타고 여행을 할 기회가 왔고  
책에 넣어 다닐 수 있도록 작게 인쇄한  
제 그림 속의 ‘당신’들과 함께  
11일간의 항해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환영 속에서 살고 있는 세계  
이번 여행에서는 더 이상  
환영이 아니더군요.

당신과 함께 할 때면...





[12524101]  
Giclee print on washi(和紙),  
60x90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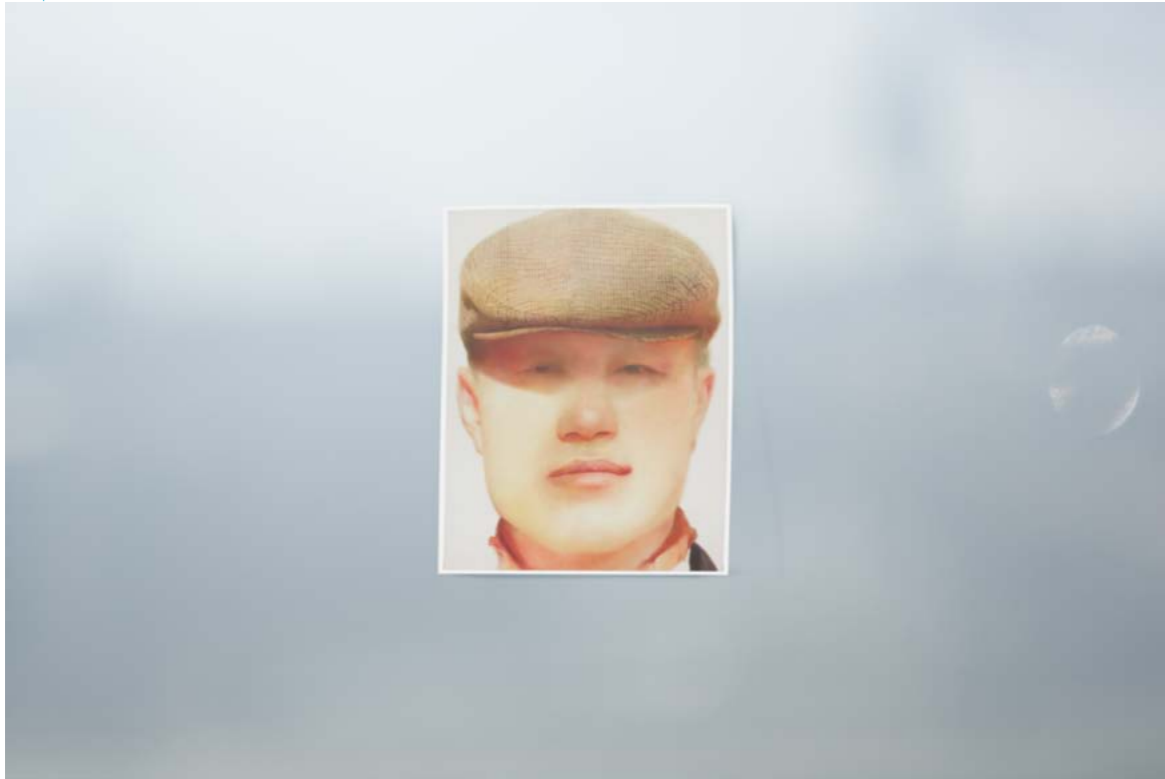


[12524101]  
Giclee print on washi(和紙),  
6x6cm, 2012



[12547401]  
Giclee print on washi(和紙),  
6x9cm, 2012

[12485401] Giclee print on washi(和紙), 60x90cm, 2012



마음 편하게 작업하고 싶었다.

몸을 맡기는 것.

처음엔 단지 몸을 맡기는 것이었다.

몇 일만 내 몸을 배에 맡기면

그 몇 일 이후에 받을 '작업비' 라는 것

나는 그 돈으로 마음 편하게 작업하고 싶었다.

[12563601] Giclee print on washi(和紙), 60x90cm, 2012



그렇게 배에 타게 되었다.

그런데, 아니더라

배와 바다와 사람과 여행

단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그런 감정은 아쉽게도 더 없을 것만 같았다.

꿈만 같다. 보석같은 날에...

# 이창진 미술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애매하고 불투명한 이미지는 규정되어  
진 것들의 경계선상의 위치하며, 그것은  
확장의 기점이기도 하다.

### 작품발표

2013년도에 <투명레진을 평편한 판에  
여러겹 중첩시켜 산·하늘·군중 등 겹  
침으로서 효과를 내는 주제> 로 전시  
발표예정

산3, 아크릴판 위에 투명수지, 120×480cm, 2012



## 작가노트

어느 날 부터인가 투명한 재료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그건 아마도 작년 여름 즈음 이었던 것 같다. 그 때 머릿속에 단편적으로 스쳐 갔던 것이, 투명한 물건이 투명한 수조같은 곳이나 재료 속에 있다면 신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건 예를 들면 욕조 안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먹고 난 컵으로 물속에 넣어 갖고 놀 때 보이는 유리컵의 투명한 실루엣과 같은 것이었다. 컵을 여러 각도로 돌려 보고 빛이 투과되고 실루엣이 거의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겨나고 하는 것들이 내 욕구를 자극했다. 애매한 시각적 경험을 재현해내고픈 욕구를. 그것은 있어 보이지도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다.

환영일 수도 있고, 아지랑이 같은 주변의 온도와 다른 대기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몰롱한 기억이기도, 머릿속의 어떤 개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형이상적인 것들과 잘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 형상을 부여하기도 한다. 우리의 머릿속엔 시각적 이미지로 존재하지만, 실재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들. 혹은 그 반대의 것들. 내가 투명함에 욕구를 느끼게 된 것은 그런 어중간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 때문일 것이다. 어중간하고 이도저도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투명함의 특성들이 어중간한 상태로 잘 드러내주겠다고 생각했다.

애매하고 불투명한 이미지는 규정되어진 것들의 경계선상의 위치하며, 그것은 확장 기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의 실험이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희미하고 불투명한 산과 바다 그리고 들 마을 균중등의 이미지는 그런 의도에서 작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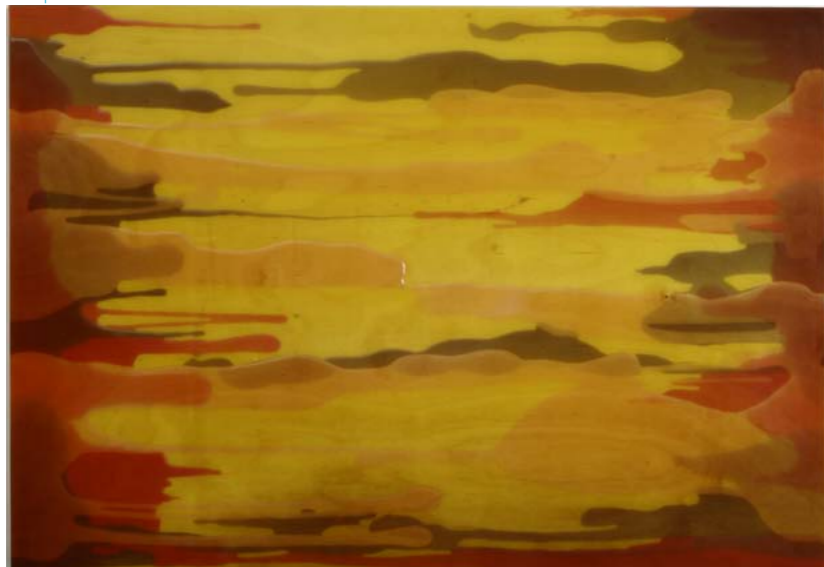


위부터 마을, 균중, 아크릴판 위에 투명수지, 87×62cm, 2012 / 들1, 들2, 아크릴판 위에 투명수지, 120×90cm, 2012



두상, 투명수지, 24×24×38cm, 2012

하늘2, 자작합판 위에 투명수지  
230×92cm, 2012



마을, 아크릴판 위에 투명수지  
87×62cm, 2012

바다1, 아크릴판 위에 투명수지  
137×40cm, 2012



바다2, 아크릴판 위에 투명수지  
137×40cm, 2012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는 물에 관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물이 튀어 오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그대로 형상화하는 작업이었다. 그 작업을 하는 5년 동안 수많은 사진을 찍었고, 많은 모각(똑같이 베껴서 조각함)을 하였다. 인위적이지 않는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작업과정은 사진을 찍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모각하는 과정이었기에 때론 지루하기도 했으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때 승선레지던시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고 가야호를 타게 되었다.

어릴적 부터 낚시를 좋아하고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던 나는 바다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다. 항상 그곳에 변함없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기와도 같이 또한 집과도 같이 거기에 있어서 항상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야호 승선이 결정되고도 그리 설레는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열흘 동안 간헐 지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배에서 내린 지금 오를 때의 나와는 많이 달라진 나를 느낀다. 망망대해의 바다한가운데 섬도 없는 푸연 수평선, 물보라 속에서 튀어 오르는 날치떼, 밤 갑판의 흔들리는 달빛, 그것은 누구나 쉽사리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다. 어찌면 살아오며 기억에 남는 일 다섯 손가락에 꼽힐만한 대단한 일이었다. 또한 다른 작가들과의 동행은 나에게 커다란 무엇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 커다란 무언은 지금 나의 새로운 작업으로 표현되고 있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참 여 작 가  
프 로 필

# 정광모 문학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鄭光謀  
Jeong Koang Mo

## 학 력

2007 한국외국어대학교 공공정책학과 대학원 졸업  
1987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작 품

2012 부산일보 <백화> - 말하는 유물 연재 시리즈  
작가와 사회 <통증의 시작과 끝>  
한국소설 <시시포스 문하다>  
도요문학무크 1 <기억금지구역 용두산>  
2011 좋은 소설 <밤, 마주치다>  
부산일보 <표적> - 소설로 문 부산 설화 연재 시리즈  
학산문학 <작화중 사내>  
2010 등단작 <한국소설>  
<어서 오십시오, 음치입니다>

## 수 상

2012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2012년 신예작가 선정

## 레지던시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사업, (재)부산문화재단, 부산, 한국

## 연락처

핸드폰 011-9524-3008  
이메일 jmolaw@hanmail.net  
주 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롯데캐슬 605-1603

# 백현주 영상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白賢珠  
Heaven Baek

## 학 력

2009 영국 글라스고 예술대학 석사 (MFA) 졸업  
2006 호주 RMIT 대학교 예술대학 미디어아트과 학사 (BFA) 졸업

## 단체전

2012 풍년슈퍼แคม프, 예술과마을네트워크, 고양, 한국  
그 거리의 창의적인 자세,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군산 리포트,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한국  
Global cities and Citystories, Casal Solleric, 마요르카, 스페인  
Rivers of the world (워크샵 프로젝트), gallery OXO, 런던  
고고 세계로 미래로, 창계천 축제, 서울  
엄마 찾아 삼천포, 서교예술센터, 서울  
2011 Global cities and Citystories, CasaAsia, 바르셀로나, 스페인  
Viewpoints, akibatamabi21(3331 아트 치오다), 도쿄, 일본  
부산- 익숙한 도시 낯선 공간, 신세계 갤러리 센터, 부산, 한국  
흥신소 (개인/ 장기 퍼포먼스 프로젝트), 꼴풀, 서울, 한국

## 레지던시

2013 SIM(아이슬란드 시각예술협회레지던시), 레이크야비크, 아이슬란드  
2012 예술과마을네트워크, 고양, 한국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사업, (재)부산문화재단, 부산, 한국  
2011 앙가 레지던시, 바르셀로나, 스페인  
군산아트 레지던시 : 우여곡절 : 군산의 사람과 움직임, 군산, 한국  
꼴풀 스튜디오 작가, 서울, 한국  
2010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서울, 한국  
2009 삼지봉부 레지던시 입주작가, 흥천, 한국

## 연락처

핸드폰 010-4015-2174  
이메일 heavenbaek@hotmail.com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4-31

# 박주현 미술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朴柱炫  
Park Ju Hyun

## 학 력

2012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학과 졸업  
2003 동아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 졸업

## 개인전

2011 5th solo exhibition <TOOL STORY>, 또따또가 갤러리, 부산

## 단체전

2012 산님어, 가양 Able Fine Art NY Gallery, Beyond Reality, 뉴욕  
<남궁> 인사아트센터, 부산가나  
2011 <비밀-오차의 범위>展, 광주, 부산시립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또따또가 아트페스티벌, 또따또가 갤러리, 부산  
금정미술제, 문화회관, 부산  
WATAGATA, 아시아 미술관, 후코후까, 일본

## 수 상

2011 문예진흥기금 전시지원 작가, 부산  
2010 쌍용예가 작품공모, 쌍용건설, 서울

## 작품소장

2011 중앙 조각공원 야외작품 선정(부산 중앙공원)  
2008 과천 국립 현대 미술관(미술은행)

## 레지던시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사업, (재)부산문화재단, 부산, 한국  
2010 - 현재 또따또가 창작공간 입주작가, 부산, 한국

## 연락처

핸드폰 010-9900-1893  
이메일 paz1893@naver.com  
주 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3동 646-24번지 12/5

# 서정우 미술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徐定佑  
Seo Jung Woo

## 학 력

2008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2005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2012 얼굴-당신과 함께 할때면, 문앤박 갤러리, 부산  
2010 얼굴-basic, 갤러리 이듬, 부산  
2009 얼굴-basic, SAM갤러리, 부산  
2007 <1995년으로부터>, 부산대학교 미술관

## 단체전

2012 2012 Face to face, KAF미술관  
비밀-오차의 범위, 아르코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2011 한중 현대미술전 「부드러운 힘」, 盛世天空美術館, 북경, 중국  
3인의 아시아작가展-한국&일본, Yokohama creativity center,  
요코하마, 일본  
비밀-오차의 범위, 부산시립미술관  
반디구출작전2, 대안공간 반디  
2010 제6회 부산비엔날레; Now asian artist, 부산시청  
익명전, 소울아트스페이스, 부산  
Happy smile, 부산 신세계갤러리, 광주 신세계갤러리  
Local wave 2010, 아트팩토리, 파주 헤이리

## 레지던시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사업, (재)부산문화재단, 부산, 한국  
2011 gallery604 레지던시, Studio604, 연양

## 연락처

개별문의



# 이창진 미술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지원사업

李昌振  
Lee Chang Jin

## 학 력

2008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석사 졸업  
2003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학사 졸업

## 개인전

2012 이창진개인전, 이듬갤러리, 부산, 한국  
2010 이창진초대전, A1갤러리 신진작가공모, 서울, 한국  
물방울조각가 이창진의 작은전시 146market 신진작가공모, 부산, 한국  
2009 Milkdrop 샘갤러리 신진작가기획, 부산, 한국

## 단체전

2012 외따가따프로젝트 청자빌딩옥상, 부산, 한국  
2011 고살길 공공미술프로젝트 괘법동 일대, 부산, 한국  
9th 부산 국제환경예술제 을숙도문화회관, 부산, 한국  
부산조각화랑페스티벌 루쓰갤러리, 부산, 한국  
2010 제6회 부산비엔날레; Now asian artist, 부산시청  
익명전 소울아트스페이스, 부산  
Happy smile, 부산 신세계갤러리, 광주 신세계갤러리  
Local wave 2010, 아트팩토리, 파주 헤이리  
2009 이듬 작가전 갤러리 이듬, 부산, 한국  
선물을 풀다 갤러리 고은, 부산, 한국  
부산, 젊은작가들의 시선, 부산대학교아트센터, 부산, 한국

## 레지던시

2012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사업, (재)부산문화재단, 부산, 한국

## 연락처

핸드폰 010-4101-0173  
이메일 jinee1979@naver.com  
주 소 경남 양산시 삼호동 대동이미지아파트 213동 801호

